



가정, 교회, 학교의 입체적 회복을 꿈꾸다!

박상진 | 박중석 | 강영택 | 유재봉 | 이숙경,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예영커뮤니케이션

생태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고, 생물학적, 비 생물학적 요소 안에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과 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태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자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자'이다. 태양에서 전달받은 빛에너지를 통해 식물의 엽록체에서 만들어진 녹말은 식물 곳곳에 저장되고, 다양한 소비자들이 이 식물의 포식자로 존재하게 된다.

생태계에서는 개체수도 무시할 수 없다. 생산자의 수는 1, 2, 3차 소비자의 그것과 비교할 때 훨씬 많다. 소비자들은 사실 생산자의 품속에서 보금자리와 먹을 거리를 모두 해결한다. 멀리서 보면 소비자들은 없고 푸른 숲만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생태계에서 생산자가 차지하는 영역은 넓다. 먹이 피라미드를 그려 보면 상위 포식자는 맨 위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최상위 포식자가 가장 강할까? 그렇지 않다. 생태계는 강하고 약함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가장 강한 포식자의 종말은 분해자에 의해 흔적도 없이 분해되어 식물의 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포식자 같으나 포식자이고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이다. 잠시 거쳐갈 존재가 생태계를 운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육 생태계'는 무엇일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생태계'라는 개념에 '교육'이라는 개념을 접목한 복합 명사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교육 안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유지해 주는 완전 독립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을 전제할 때 일반적인 '자연 생태계'와 '교육'이라는 요소를 혼합한 표현은 무모하거나 절대적으로 비장하게 느껴진다.

교육 생태계에서 생산자는 누구일까? 또 하나님 중심의 교육 생태계에서 만들어 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교육을 논하면서 '지식'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교육 생태계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존재가 생산자일까? 교육사조에 따라 지식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가 달라지겠지만, 분명 지식은 생산 요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학문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가 시소 타듯이 주류를 형성하며 이론들을 내놓을 때는 그나마 따라갈 만했다. 그런데 디지털 문명과 그 문명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4차 산업

이 책은 다방면에서 무너져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교육 생태계의 방향을 설정해 줌으로써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그런 식의 '지식'을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책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면 아이들은 콧방귀를 뀌다. 그 정도는 자신들도 찾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교육 생태계에서 생산자는 누구이고 생산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 기독교교육 생태계에서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생산자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 기독교교육 생태계에서 얻고 싶은 생산물은 '생산물'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의미 있는 바로 그것, 스스로 지식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학생'이다. 기존의 교육관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 생태계 속에서 그들이 자신만의 능력과 독특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는 세상의 지식을 융합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지식을 조합해 낼 것이고 나아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 시대를 책임 있게 살아갈 사람을 기르는 것이 기독교교육 생태계의 최종적 목표여야 한다. 그렇다면 생산자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이런 사람의 자양분

이 될 수 있는 풍성한 환경들이 바로 생산자이다. 그것은 가정일 수도, 학교일 수도, 교회일 수도, 사회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환경만이 진정한 기독교교육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 생태계의 소비자도 존재할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산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형태도 달라진다. 포식과 피식의 관계로 묘사되는 자연 생태계와 달리 섬김과 봉사의 관계이다. 자기 삶의 결정자, 자신의 강점을 알고 발전시키며 약점을 알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주변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런 구성원이 있는 가정이 가장 먼저 소비자가 될 것이다. 구성원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싸매어 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 교회, 사회는 말할 것도 없다. 자신의 빛을 꾸준히 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회복되고 살림의 삶이 번져 나가게 될 것이다. 자연 생태계에는 개체 간 상호작용 중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파괴의 과정이 있다. 누군가는 먹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독교교육 생태계에서는 회복의 모습이 두드러질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을 한 권의 책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책은 다방면에서 무너져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교육 생태계의 방향을 설정해 줌으로써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책은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분절적 전개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한 편의 옴니버스 이야기책 같다.

바로 이 시대가 주일학교 모델을 넘어
새로운 부흥을 준비할 시기다.
‘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학교가
서로 ‘큰 폼 누리’에서 통합을 이뤄야 한다.

1장에서 저자는 기독교교육 생태계 복원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리서치 자료들을 제시하며 현 시점에서 교회교육의 회복을 역설한다. 많은 조사 자료들이 교회학교 청소년들의 감소와 무관심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소개되어 있다. 교회의 위기, 나아가 교회학교의 위기를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한 결과와 교회 자체의 문제로 인한 인위적 결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교회의 가정교육에 대해 논한다.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교회가 가정교육을 도와야 할 성경적 배경을 비롯하여 필요성까지 논리정연하게 서술하고 있다. 성경에서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사회적 공동체이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 가장 포근한 곳이다.

이러한 가정을 교회와 함께 세워 가는 방법과 내용을 저자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환경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은 전인격적 성장이 가능하며 나아가 교회 부흥의 핵심이 될 것이다.

3장에서는 교육이라는 활동이 시대사조에 부응하며 어떻게 발전했고 오늘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지금의 기독교교육이 어떤 절차를 거쳐 발전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사회적 배경과 구체적인 존재 형태를 예로 들며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교회와 학교의 다양한 관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놓은 부분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자발적 교육 형태들에 친절한 길 안내를 해 준다.

4장에서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 교회가 지역에서 스스로를 독립시킬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열고 지역과 그 지역 학생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 설교 중심의 교회 사역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제 단상에서 외치는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과감하게 삶으로 도전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제 사례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5장에서는 기독교적 미디어 교육을 전문가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기독교교육 분야에 미디어 교육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가상 세계에 대한 거부감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없다. 미디어 교육은 그것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위해 활용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도전과 결과물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이미 방대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은 소프트웨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디자인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장은 지금까지 가정, 교회, 학교 등 부분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바로 이 시대가 주일학교 모델을 넘어 새로운 부흥을 준비할 시기라고 역설하는데, 그가 제시하는 모델은 바로 ‘폼’이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학교가 서로 ‘큰 폼 누리’에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면밀히 따져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실패한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학교들이 우리나라의 후학을 양성하고 근대화의 초석을 쌓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 시대에 경쟁적 입시 제도를 선동하고 특정 사회적 계층에게 유리한 입시 전형을 내세우며 시대의 아픔을 감싸 안기는 커녕 부추기는 일에 앞장서는 학교들과 학습자들 대부분이 실패자로 전락하는 줄 세우기식 입시교육을 고수하는 기독교 재단 소속 학교들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출판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온다. 글 앞머리에서 얘기했지만 ‘생태계’는 삶을 배제하고 논할 수 없는 배경이고 환경이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은 그들의 고유한 색과 빛을 찾을 권리가 있고 그 환경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삶으로 도전해야 한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삶은 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다.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기성세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

저하지 말고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교회는 교리 안에 학교를 가두려는 욕심을 버리고, 학교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찾아 교육철학을 바로잡고 자존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소유물이나 대리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글 | 이상찬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생물교육을 전공하였고 2012년부터 19년차 공립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교사들과 함께 충남 금산에 별무리마을을 세우고 그 안에 별무리학교를 만들어 초, 중, 고 교육과정이며 마을 공동체와 어우러지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